한국_Korea 생활속담

날짜 : 2025년 12월 14일 8:48 오후

타이틀	설명
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	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하나같이 모두가 귀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	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유혹하거나 권유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	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말
엎드려 절 받기	상대방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요구하여 대접을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옥에도 티가 있다	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좋은 물건에도 조그마한 흠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우물 안 개구리	사회의 형편을 모르는, 견문이 좁은 사람
옆 찔러 절 받기	상대방은 모르고 있거나 할 생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알려 주거나 요구함으로써 대접을 받는다는 말
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	무슨 일이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이룰 수 있다는 말
엎치나 덮치나	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말